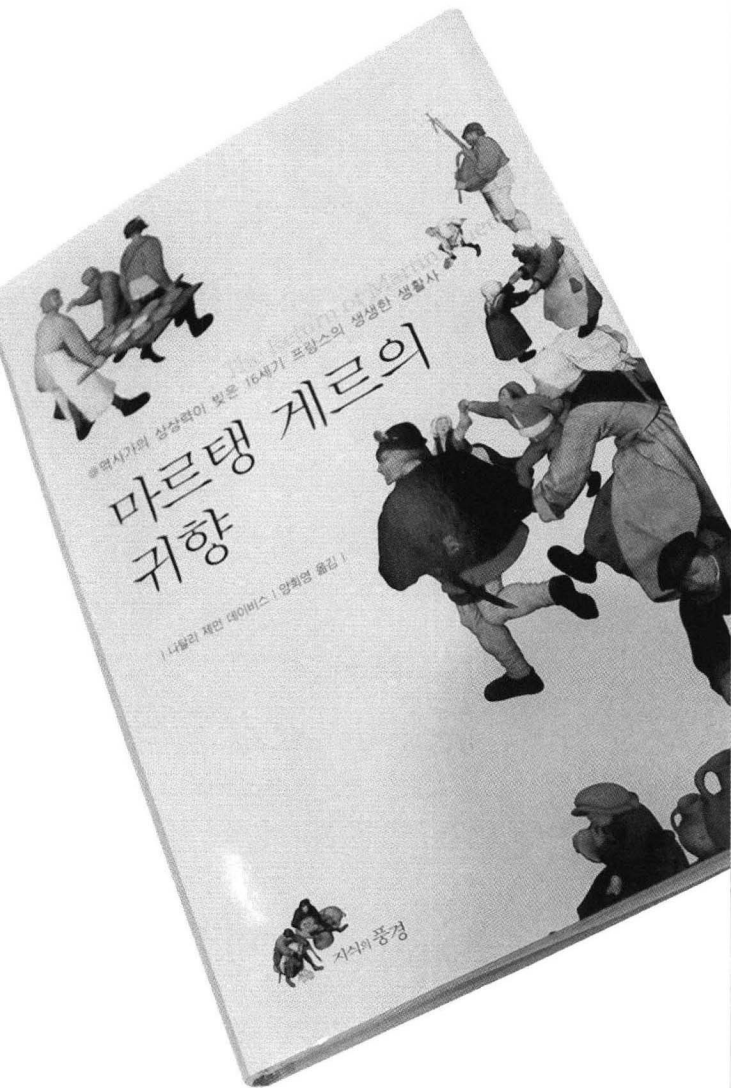


감히, 인간의 욕망과 행동을 '단죄'하려 들다니!



《마르탱 게르의 귀향》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 지음 | 양희영 옮김 | 지식의풍경 | 248쪽 | 값 9,500원

●이 글을 쓴 정여울은

미디어 헌터 로 <문학동네> <한국문학> <씨네21> 등 여러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20세기 초 몽유약식의 담론적 특성 연구> <비정치성의 정치성, 비역사성의 역사성-이옥론>이 있으며, 공저로는 <이것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book+ing, 책과 만나다》 <국민 국가의 정치적 상상력>이 있다.

시점 1 : 우리의 침실에서는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막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었던 그와 나 모두 '침대의 예절'에 대해 무지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와 나 사이에는 어떤 애뜻한 감정도 흐르지 않았다. 남편은 어떤 의논도 없이 나를 떠나버렸다.

12년 동안 나는 남편 없이 정조를 지키는 여자였다. 자신이 마르탱 게르라 주장하는 사람이 걸어 들어왔을 때, 이상한 것은, 그가 남편이 아님을 직감하면서도 나의 얼굴을 따뜻하게 휘감던 그의 시선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침대에서 그를 받아들였을 때, 직감은 더욱 확실해졌다. 그러나 그를 밀어낼 수 없었다. 한 번도 연애다운 연애를, 가정다운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나에게 그는 사랑과 행복을 한꺼번에 선물해 주었다.

재판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역사, 진실? 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위대한 기록도 '가짜 마르탱 게르'와 내가 베갯머리에서 나누었던 그 은밀한 대화와 사랑의 흔적을 온전히 기록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의 첫 번째 불행은 여자의 행복보다 여자의 정조가 중요한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 두 번째 불행은 '진짜 마르탱 게르'와 결혼했다는 것. 그러나 세 번째 불행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을 사형대에서 잃었다는 것.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점 2 : 나는 농촌의 안정된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 기장밭, 기와 공장, 소유지, 결혼 너머의 생활을, 언제나 꿈꾸었다. 나의 방랑벽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들어갔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기경 집안의 하인이 되었다. 프랑수아에 대해 싸우는 펠리페 2세의 군대에 배속되어 전투도 경험했다. 한 번도 농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나에게, 이 모든 경험은 축복이었다.

약 20년 후 아내가 다른 남자, 그것도 나의 흉내를 내는 '가짜 나'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오쟁이진 남편'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다. 가짜 마르탱 게르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 남자는 나보다 나에게 더 잘 알았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자잘한 일들을, 그는 나보다 잘 기억했다. 당혹스러웠다. 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야말로 진짜 나보다 더욱 진짜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복제품인 그가 더욱 원본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나는 그런 고뇌를 짊어지기엔 너무 지쳐 있었다. 무엇보다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한번도 나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낸 적이 없는

그녀가, 가짜 마르탱 게르를 구명하기 위해 모든 굴욕을 감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점 3 : 나는 타인을 나의 유머 앞에 무장해제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도박과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던 이유도, 억누를 수 없는 장난기와 누구든 매혹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랑하던 중 “자네 마르탱 게르 아난가”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던 사람들 앞에서, 타고난 장난기가 발동했다.

물론 그의 아름다운 아내와 드넓은 농장에 탐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를 만난 후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재산을 두 배 이상으로 불렀으며, 어여쁜 딸들도 태어났다. 나에게 매료된 인간들은 많았지만, 많은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무엇보다도 베르트랑드,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사형대에 오르기까지 그저 총명한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이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내 모든 지식과 용기를 동원해 내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분명한 것은 그 엄청난 사기행각이 나의 삶을 진정 바꾸어놓았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마르탱 게르보다 더욱 마르탱 게르다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사랑인 채로 사형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시점 4 :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재판관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판관으로서의 나의 지위를 처음으로 위협했다. 수표 위조도 아닌, 정체성의 위조라니. 판례가 없음은 물론이요 죄명을 붙일 수도 없었다. 증인들의 반응도 천차만별이었다. 마르탱의 누이들은 하나같이 새 오라비가 ‘진짜’라고 주장했다. 마르탱과 재산 분쟁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가 ‘완벽한 모사품’이라 주장했다.

나는 가짜 마르탱에게 매료되었다. 그가 나처럼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는 것, 훌륭한 가장이자 유능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새로운 삶에 대한 빛나는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 모두가 매혹적이었다. 그러나 재판관으로서 나의 결정은 결혼과 자녀를 보호하는 것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를 쫓아내 태워 추방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어떤 처벌로도 근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제도의 그물로도 포획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재판관으로서 이 전대미문의 괴물 같은 욕망이 사회에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되도록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했다. 결혼과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를 이러한 괴물적 욕망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점 5 : 정확한 사료가 존재하는 사건만으로 역사를 구성한다면 역사는 얼마나 빈곤할까. 16세기는 특히 농민들의 사료가 턱없이 부족하다. 농민의 90퍼센트 이상이 문맹이었을 뿐 아니라, 바쁜 농민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사건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은 재판관 장 드 코라스의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법률의 시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그들의 자료로 시름하던 나는 마침내 역사관을 수정해야 했다. ‘중거’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쓰자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여백을 채워나가는 일 또한 역사가의 임무라고. 이 책은 나에게 역사가로서의 삶의 반경을 넓혀주었다.

나는 이 책의 영화화에도 기꺼이 참여했다. 영화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역사가의 임무가 대중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에도 존재함을 깨달았다.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르트랑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조차 ‘가짜 마르탱 게르’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시점 6 : 이 책은 나에게 처음으로 ‘우리의 공부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화두에 대답해 주었다. 나탈리는 역사가다. 그러나 그녀의 문학적 상상력이 없었다면 이 빈곤한 역사적 기록은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500년 전의 인간들을 향한 그녀의 날카로운 해부학적 시선은 결코 기록될 수 없었던 그들의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이기도 했다. 역사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상상력이 행복한 삼위일체를 일군 최초의 책. 복제인간이라는 화두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가로지르고 있다.

황우석 교수가 일으킨 전세계적 파문에도 이 책은 ‘인문학적 해답’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생명체의 복제를 꿈꾸는 과학자들보다 그들의 욕망과 호기심을 ‘단죄’하려는 이들이 더욱 두렵다.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인간의 행동을 단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생명복제를 향한 보편적 호기심보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닐까.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의 복제인간이여.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를 둘러싼 이 복잡한 관계의 그물, 욕망의 시슬은 당신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모사품인 당신의 눈에는 원본들의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너무도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